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6-10

여 연 포 커 스

YDI FOCUS

발행일 2016년 11월 4일 (금)

〈 2016 미국대통령 선거 ⑤ 〉

美 대통령/의회 선거, 최종 승자는?

- 목 차 -

要 旨	i
I. 2016년 미국 대선 : 현재까지의 추이	1
II. 대선 결과 예측 모델	3
III. 의회 선거의 전개양상과 판세	8
IV. 한국에의 시사점	14

〈2016 미국대통령 선거 ⑤〉

美 대통령/의회 선거, 최종 승자는?

작 성 유 성 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담 당 유 성 현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2016 미국 대통령 선거현황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총 6차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5차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 결과를 예측분석한 글로,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여의도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연속보고서 발간 현황 - 1차 정권 재창출인가, 정권 교체주기인가?
2차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와 정책'
3차 美 대선, 이번 일어날까
4차 'Swing States'가 대선의 승패를 가른다



여의도연구원

《 要 旨 》

○ 이메일 악재 불구, 클린턴 당선 유력해

-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 간의 대결로 압축된 2016 미국 대통령선거는 9월 초 본선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줄어들었던 지지율의 격차가 트럼프의 잇따른 추문과 후보토론에서 무난하게 승리한 클린턴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임
- 현재 판세를 지지율이 아닌 “선거인단지도(electoral college map)”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주당의 우세는 한층 더 확연해짐. CNN의 추산에 따르면 선거인단의 수에서 공화당 확실 157석, 우세 22석, 민주당 확실 200석, 우세 72석으로 현재 판세가 유지된다면 민주당이 272석을 확보하여 거의 확실한 승리를 굳히고 있음
- 선거 막판 클린턴에게 악재인 이메일 스캔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으나 이미 많은 이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했고,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므로 민주당의 승리는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 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여러 모형들도 대부분 민주당 클린턴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음. 현재 미국 경제의 상태와 전망이 다소 긍정적이라는 점, 오바마 대통령 업무수행 지지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임
- 결과적으로 예측모형의 측면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음. 다만 어떠한 예측모형에서도 득표율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이번 대선의 결과도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것임을 가늠케 함

○ 행정부는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으로 유지될 가능성 커

- 미국 의회선거의 역사적 양상은 선거의 주기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음. 즉,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동시선거에서는 대통령의 후광효과에 힘입어 소속정당의 후보들이 약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 의회 선거만 있는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선거제도는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2년마다 실시되는 의회선거로 나뉘는데 양원제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구분되며 매 2년마다 하원은 435명 전원, 상원은 100명 중 대략 1/3이 교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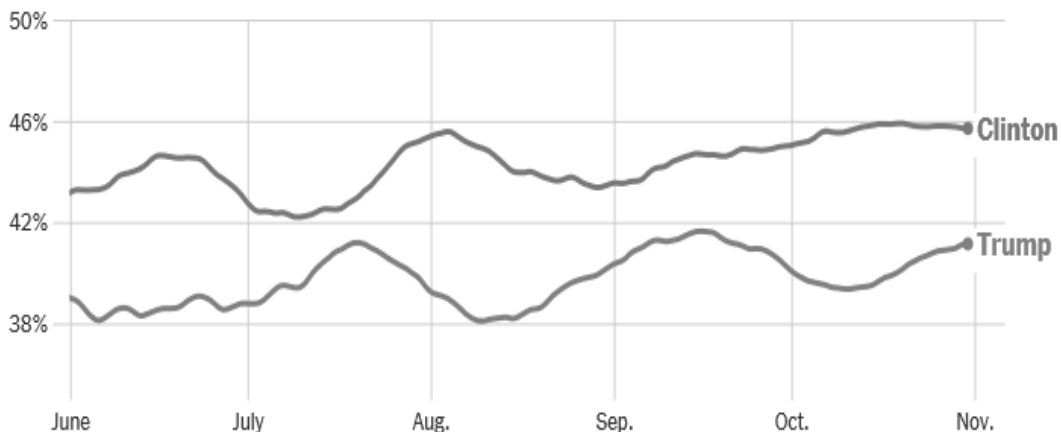
-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선거에 나선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중적인 호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의회선거에서 이들의 후광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결국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의 연동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하원에서 현직자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여러 가지 추문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의회선거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클린턴의 승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 의회선거의 양상을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현재 예측해 볼 수 있는 결과는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이라는 현재의 권력구도가 유지되거나, 행정부와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라는 2010년과 2012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임
-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행정부 지속의 관점에서 대미 정책의 기본틀을 짜야할 것으로 보임

I. 2016년 미국 대선 : 현재까지의 추이

272 對 266(CNN 예측), 트럼프 판세 뒤집기엔 역부족

- 2016 미국 대통령선거는 9월 초 본선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줄어들었던 지지율의 격차가 트럼프의 잇따른 추문과 후보토론에서 무난하게 승리한 클린턴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였음
- 그러나 그 지지율의 격차는 여전히 5-6%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하기는 어려움
- 하지만 클린턴의 지지율 우세 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자질과 과거 추문으로 인해 공화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유세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트럼프 후보가 전체적인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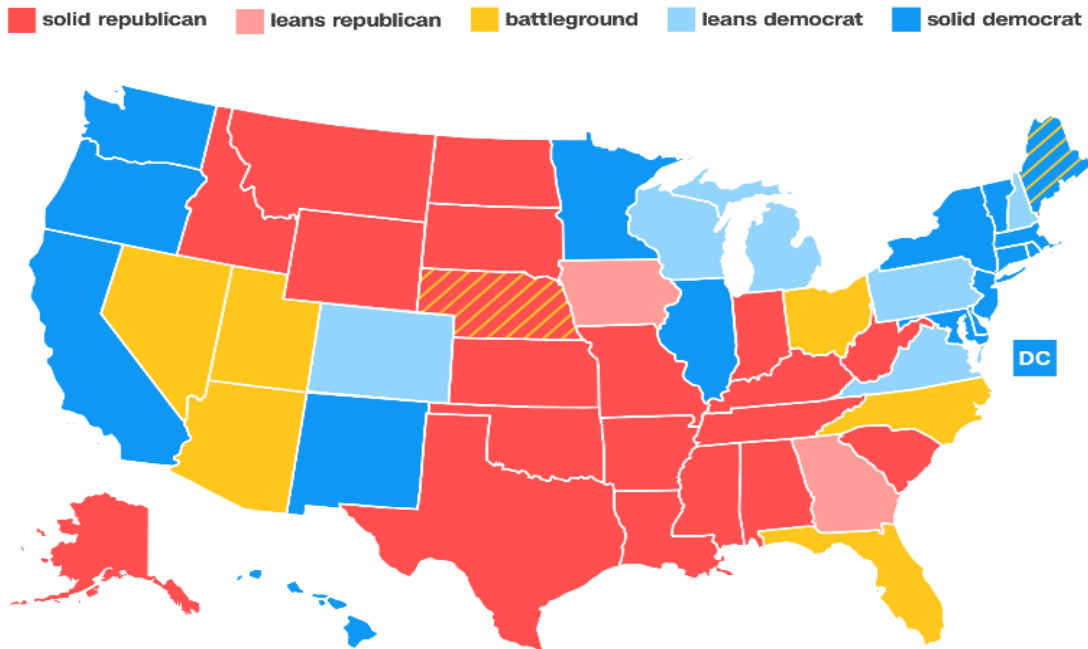
[그림 1]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변화 추이



출처 :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6/us/elections/polls.html?_r=0 (검색일: 2016년 10월 27일)

- 현재 판세를 지지율이 아닌 '선거인단지도(electoral college map)'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우세는 한층 더 확연해짐
- [그림 2]는 CNN이 가장 최근 발표한 현재 판세로 각 주에서 두 후보가 어떠한 각축을 보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음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CNN의 판세 분석은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그림 2] “선거인단지도”로 본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판세



Note: The split congressional district ratings are symbolized with diagonal lines.

출처 : <http://www.cnn.com/2016/10/27/politics/road-to-270-electoral-college-map-october-26/index.html>
(검색일: 2016년 10월 27일)

- 기존 민주당과 공화당의 우세지역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합주로 일컬어지던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그리고 버지니아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점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음을 보여줌
- CNN에 따르면 선거인단의 수에서 공화당 확실 157석, 우세 22석, 민주당 확실 200석, 우세 72석으로 현재 판세가 유지된다면 민주당이 272석을 확보하여 거의 확실한 승리를 굳히고 있음
- 현재 경합을 보이고 있는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주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여 87석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하더라도 266석에 그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선거 막판 클린턴에게 악재인 이메일 스캔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으나 이미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상황이고,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임

Ⅱ. 대선 결과 예측 모델

7개 中 5개 모델 클린턴 승리 예측(2개는 트럼프의 승리 전망)

- 건국 이후 큰 변화 없이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는 결과를 예측하는 많은 모형들의 존재 역시 흥미로움
- 매년 늦여름에 개최되는 미국정치학회의 연례학술대회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특별히 선거 예측모형을 위한 패널이 구성되어 연말에 치러지는 선거에 대한 예측결과를 발표함
- 이번의 경우에도 주요 선거 예측모형들이 결과를 예측하였으며, 그 중 주요한 몇몇 모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Primary Model (Helmut Norpoth, Stony Brook University)

- 기본적으로 후보경선에서 양당 후보가 얼마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유권자 차원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의 정도를 반영한 양당체제에서 권력교체 주기를 예측의 핵심변수로 상정함
- 실제 모형에서는 완전경선으로 실시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두주자가 획득한 득표율, 직전(2012년) 그리고 그 이전(2008년) 대선에서 여당이 획득한 득표율이 예측변수로 활용됨
- 예측 결과는 공화당 52.5%, 민주당 47.5%로 공화당 승리로 나타남

2. Time for Change Model (Alan Abramowitz, Emory University)

- 예측변수 : 현직대통령 선거연도 중반 업무수행지지율(Gallup), 선거연도 두 번째 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 정당의 행정부 장악기간 (첫 임기 혹은 그 이상)
- 이 모형은 1988년 선거 이후 모든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맞추었고, 세 변수의 수치는 각각 +6%, 1.2%, 세 번째 임기도전으로 나타남

- 이를 예측모형에 대입한 결과는 공화당 51.2%, 민주당 48.6%로 근소하게 공화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측모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 두 번 임기에 이어 세 번 연속으로 집권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초래하고 그것이 공화당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실제 결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크게 반영됨

3. Economic Expectations and Political Punishment Model (Brad Lockerbie, East Carolina University)

- 개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이 결국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
 - 선거가 있는 해의 두 번째 분기에 소비자태도행동조사에서 측정된 개인 경제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고 이를 모형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예측함
-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50.4%의 득표율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나타남

4. Leading Economic Indicators and the Polls Model (Robert Erikson, Columbia University, Christopher Wezien, Univ. of Texas)

- 선거 국면에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이 두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주요 경제 지수(LEI: Index of Leading Economic Indicators), 현시점 여당 후보 지지율을 채택함
- 예측의 결과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 52.0%, 공화당 트럼프 후보 48.0%로 민주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

5. The State-by-State Political Economy Model (Bruno Jerome, Univ. of Paris 2; Veronique Jerome, Univ. of Paris Sud Saclay)

- 과거에는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모형으로 미국이 아닌 프랑스의 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예측모형이라는 점이 특이함
 -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미국 전체가 아닌 주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역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연방제로 인해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혼용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성을 감안한 결과임
 - 구체적으로 이전 선거부터 다음 선거까지 주별 실업률의 변화로 경제적 요인을 측정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대통령 업무수행지지율, 정당별 세력 균형의 변화, 주별 후보경선 결과 등을 같이 고려하고 있어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음
- 모형의 예측결과는 전체 득표율은 민주당 50.1%, 공화당 49.9%로 민주당의 근소한 승리를 예상하였고, 투표인단 수에서는 민주당 319표, 공화당 219표로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을 점치고 있음

6. Political Economy Model (Michael Lewis-Beck, Univ. of Iowa; Charles Tien, CUNY)

- 네 번째 모형과 유사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데,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선거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 두 요인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결정됨
 - 다만 위의 모형과 달리 경제적 요인은 선거연도의 두 번째 분기 GDP 성장률, 정치적 요인은 선거연도 중반 갤럽에서 조사된 대통령 업무수행지지율로 측정됨
- 예측 결과는 51.1%의 득표율을 얻은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나타남

7. Labor Day Trial-Heat and Economy Model (James Campbell, Univ. at Buffalo, SUNY)

-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나 측정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 정치적 요인은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초 노동절 연휴 시점에 양당 후보 대결에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경제적 요인은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기반으로 측정됨
- 예측결과는 양당투표에서 민주당 클린턴이 50.7%, 공화당 트럼프가 49.3%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8. 총평

- 여기에서 소개된 예측모형들은 짧게는 1996년 이후 선거, 길게는 20세기 전반기의 선거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 매우 높은 예측률을 보이고 있음
 - 주요 모형들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들은 경제상태,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정치적 변수, 교과서적인 양당 체제를 갖고 있는 미국의 특성을 고려한 역사적 선거주기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측정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임
 - 예측결과는 주 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다섯 번째 모형을 제외하고는 전국 차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득표율로 산출되어, 선거인단 득표수로 결정되는 미국 대선의 제도적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건국 이후 미국 대선의 역사에서 득표율과 실제 승자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네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임
- 또한 다섯 번째 모형을 제외하고는 양당 후보들 간의 경쟁만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제3후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있음

- 미국 대선의 제도적 특성상 제3후보가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나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인단제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문제라고 보임
- 전체적으로 두 개의 모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클린턴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음
 - 공화당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는 두 모형은 Primary Model과 Time for Change Model로 권력 교체의 주기를 주요 변수로 포함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음
- 민주당 클린턴 승리를 예측하는 모형들은 현재 미국 경제의 상태와 전망이 다소 긍정적이라는 점, 오바마 대통령 업무수행 지지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임
- 결과적으로 예측모형의 측면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음
 - 다만 어떠한 예측 모형에서도 득표율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이번 대선의 결과도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것임을 짐작케 함

Ⅲ. 의회 선거의 전개양상과 판세

1. 의회선거의 역사적 패턴과 2016 선거

동시선거 임에도 후광효과 크지 않아, 하원은 현직자 효과 작용

- 미국의 선거제도는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2년마다 실시되는 의회 선거로 나뉨
 - 양원제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구분됨
 - 선거 주기로 매 2년마다의 선거에서는 435명 하원의원 전원과 100명의 상원 의원의 대략 1/3이 교체됨
- 미국 의회선거는 동시선거에서는 유리한 대통령 후보에 의한 후광효과가,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
 - 즉,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동시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의 후보들이 약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 의회선거만 있는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차이는 동시선거에서의 후광효과의 존재와 중간선거가 정치권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설명됨
 - 즉 동시선거에서는 선출되는 대통령의 대중적인 인기가 같은 소속정당의 의회선거 후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coattail effect)”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쉬움
 - 그러나 중간선거에서는 후광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임기 중반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행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빈번함

- 1980년 이후 미국 의회선거의 결과를 정리한 <표 1>을 보면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상하원 모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선거주기에 따라 동일한 역사적 패턴을 보임
-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에 치러진 1994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며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짐
 - 유사하게 공화당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에 치러진 2006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의회 권력을 차지함
 - 반면 동시선거에서는 여당이 의회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경향은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6년 의회선거는 동시선거여서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연동되기 쉽지만,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중적인 호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의회 선거에서 이들의 후광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여러 가지 추문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의회선거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각 후보에게 스스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민주당 클린턴의 승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 의회선거의 양상을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다만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상원의 34석 중 공화당 24석, 민주당 10석이라는 사실은 적어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수성의 입장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의회권력 교체의 가능성이 하원보다는 상원에서 더 높음을 의미

<표 1> 미국 의회선거결과 : 1980~2014

연도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1980	46	53	244	191
	(-12)	(+11)	(-33)	(+33)
1982	46	54	272	163
	-	(+1)	(+28)	(-28)
1984	47	53	253	182
	(+1)	(-1)	(-19)	(+19)
1986	55	45	258	177
	(+8)	(-8)	(+5)	(-5)
1988	55	45	258	177
	-	-	-	-
1990	56	44	270	164
	(+1)	(-1)	(+12)	(-13)
1992	57	43	258	176
	(+1)	(-1)	(-12)	(+12)
1994	47	53	204	230
	(-10)	(+10)	(-54)	(+54)
1996	45	55	206	228
	(-2)	(+2)	(+2)	(-2)
1998	45	55	211	223
	-	-	(+5)	(-5)
2000	50	50	211	221
	(+5)	(-5)	-	(-2)
2002	48	50	205	229
	(-2)	-	(-6)	(+8)
2004	44	55	201	232
	(-4)	(+5)	(-4)	(+3)
2006	49	49	233	202
	(+5)	(-6)	(+32)	(-30)
2008	55	41	256	178
	(+6)	(-8)	(+23)	(-24)
2010	51	47	193	242
	(-4)	(+6)	(-63)	(+64)
2012	53	45	201	234
	(+2)	(-2)	(+8)	(-8)
2014	44	54	188	247
	(-9)	(+9)	(-13)	(+13)

주 1) 수치는 의석수, 괄호 안 수치는 증감

2) 어둡게 표시된 연도는 동시선거를, 그렇지 않은 연도는 중간선거를 나타냄

2. 2016 상원선거

- 이번 선거에서 새로이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의석수는 모두 34석이며, 이 중 현재 24석은 공화당이 10석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임
 - 2014년 선거의 결과로 현재의 상원은 공화당 54석, 민주당 44석, 무당파 2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상원선거에서 주목되는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민주당이 2014년 중간선거에서 빼앗긴 상원의 의회권력을 되찾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
 - 현재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당파 2명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다시금 장악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으로부터 5석을 빼앗아 와야 함
- 상원의 장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연방대법관의 인준권한을 상원이 갖고 있기 때문임
 -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대법관의 충원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한 지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차기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이번 재선에 임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의 다수가 2010년 티파티 운동의 지원에 힘입었다는 점 역시 흥미로운 포인트임
 - 티파티 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이들이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도 관심을 가질 만함
- 따라서 상원의 권력구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관의 성향이 영향을 받게 됨
 - 미국 사회의 최종적인 변화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과거의 여러 경험들을 볼 때 이는 주목할 만한 사안임
- 또한 대선에서의 패배가 유력해진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차기 행정부에서의 권력분점을 위해서는 상원의 장악이 더욱 절실해진 입장임

- 현재까지의 판세를 보면,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양상
 -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10석 중 한 석(Nevada)을 제외하고는 9곳에서 민주당의 수성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 반면,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24석 중에서는 14곳에서만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7곳은 박빙으로 분석됨
(https://ballotpedia.org/United_States_Senate_elections,_2016 기준)
 -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플로리다, 오하이오, 위스콘신, 인디애나,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일곱 주로, 대부분 대선에서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임
- 결국 상원의 결과 역시 경합주에서의 승부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임.

3. 2016 하원선거

- 상원과 달리 하원의 경우 공화당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티파티 운동의 지원에 힘입어 역사적인 승리를 통해 하원을 재장악한 공화당은 지금까지 세 번째 회기동안 하원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
- 현재 하원의 구성은 총 435석 중 3석이 공석인 가운데 민주당 186석, 공화당 246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수치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석을 공화당으로부터 탈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1980년 이후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이 30석 이상의 승리를 거둔 경우는 2006년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임
- 더욱이 하원은 지역구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현직 의원이 유리한 “현직자 효과(incumbency effect)”가 크고 전국적인 사안 보다 지역적인 사안에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보임

- 다만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임하지 않고 은퇴를 선언한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가 민주당 보다 많다는 점(공화당 19명, 민주당 9명)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 현재까지의 판세를 보면 박빙으로 분류되는 16개의 지역구 중 민주당 의석은 1석에 불과한 반면, 공화당 의석이 15개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민주당 우위로 분류되는 11개의 지역구 중 6곳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는 민주당 지역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http://www.centerforpolitics.org/crystalball/2016-house/> 기준)
- 결과적으로 이번 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10-15개의 의석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하원 장악에 필요한 30석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IV. 한국에의 시사점

민주당은 행정부, 공화당은 의회 장악 가능성 높아

- 막바지에 다다른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현재 판세는 민주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어 오바마 행정부 8년에 이어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하는 결과가 예측됨
- 의회선거에서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이전보다 의석수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상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하원 장악에 필요한 30석을 차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임
 - 과거의 동시선거에서는 의회선거의 결과가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연동되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양당 대선 후보의 대중적 호감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그런 연동성이 크게 약화되어, 의회선거 특히, 하원선거에서 현직자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재 예측해 볼 수 있는 결과는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과 의회권력을 장악한 공화당이라는 현재의 권력구도가 유지되거나, 행정부와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라는 2010년과 2012년의 양상이 재현되는 두 가지 상황임
 -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행정부 지속의 관점에서 대미 정책의 기본틀을 짜야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차기 행정부 초기에 과감한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
 - 그 까닭은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클린턴도 이메일 스캔들과 클린턴 재단문제 등 정치 지도자로서의 흠결이 드러난 상황이고, 2008년 오바마가 당선될 때와 같은 참신성과는 거리가 멀고, 대중적인 호감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 있음

- 특히, 과거 국무장관 시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었고 이란 핵협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었지만 당선 후 클린턴이 대외정책에서 있어서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으리라 보기는 어려우며, 일단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내정책을 우선시 하고, 이에 따라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면이 펼쳐질 것임
- 예컨대, 국내적 차원의 고려로 경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대외정책에 대한 압박으로 이용할 것이 예상됨
-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압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미국의 대북정책 등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설정과 이에 발맞춘 국내적인 합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미국에의 대안 제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출현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후보 저마다의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포커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포커스」의 전문을 www.ydi.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 (02) 2070-3300 팩스 : (02) 2070-3331 (우 07238)